

중양절을 기다려 다시 와서 국화 앞에 나아가리

기래완

바람이 제법 소슬해졌습니다. 음력 9월 9일은 중양절. 지금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절기이지만,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노란 국화를 따다가 찹쌀전을 만들어 먹는다. 삼짇날 진달래전을 만드는 것과 같다. 이것 역시 화전이라 한다... 서울 풍속에 9월 9일에는 남산과 북악산에 올라가 먹고 마시는 것을 위락으로 여긴다. 대개登高登高的 옛 풍습을 답습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중양절의 등고는 높은 산에 올라가 붉은 산수유열매를 꺾고 국화주를 마시며 장수를 기원하고 액운을 물리치는 행사였습니다.

故人具鷄黍 벗이 닭고기 기장밥을 차려놓고 邀我至田家 나를 불러 시골집에 이르렀네

綠樹村邊舍 초록 수풀은 마을을 들렀고 靑山郭外斜 푸른 산은 성밖 너머에 기울었네

開軒面場圃 창을 열어놓고 채마밭 바라보며 把酒話桑麻 술잔 들고 뽕과 삼농사 얘기하네

待到重陽日 중양절을 기다려 還來就菊花 다시 와서 국화 앞에 나아가리

맹호연孟浩然<과고인장過故人莊>

벗이 시골 농가에서 닭고기와 기장밥을 차려놓고 시인을 청하였습니다. '닭고기와 기장밥'은 특정한 음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손님을 위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이란 의미의 상용어일 뿐입니다. 어쨌든 벗의 농가에 가보니 마을은 초록 수풀에 둘러 있고, 멀리 보이는 푸른 산은 외성外城 너머에 기울어 있습니다. 참으로 평온한 시골마을의 정경입니다. 벗과 함께 대청에 앉아 창을 열고 마당가의 채마밭을 바라봅니다. 아마 그곳엔 아욱과 쑥갓, 오이와 호박 등 찬거리로 일용할 여러 채소가 심어져 있었겠지요. 물론 두엄냄새도 풍겨왔을 것입니다. 시인은 벗과 더불어 술잔을 기울이며 뽕과 삼농사의 작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서 언급한 뽕과 삼은 제반 농사를 대표하는 상용어로서 농사 전반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술잔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던 시인은 문득 감회에 젖어 중앙절이 오면 이곳에 다시 와서 국화 앞에 나아가리라 속으로 다짐합니다. 아마도 다정한 벗이 살고 있는 시골 농가의 삶 속에서 마음의 평온함을 사무치게 느꼈기 때문이었겠지요.

국화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은자의 삶을 상징하는 꽃이었습니다. 은자의 대표적인 도연명이 그 꽃을 유독 사랑하였던 때문이지요. 그래서 국화는 곧 도연명이며, 나아가 은자의 삶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국화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곧 공명을 추구하는 세속적 생활을 떠나 전원으로 돌아와서 은거하겠다는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시는 역대 비평가들로부터 모든 구절의 표현이 매우 자연스럽고 인공적 수식이 없어서 운치가 충담沖澹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나아가다'라는 의미로 쓴 '취就'자가 절묘하다는 칭송을 들었는데, 결국 '취'자는 고도의 기교를 부린 글자임에도 명장의 솜씨로 인하여 자연스러움을 획득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전원으로 돌아가 살겠다는 시인의 생각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노자가 주장하였던 인간의 가장 행복한 삶이란 결국 문명의 도구를 멀리한

원시적 전원생활이었고, 도연명이 꿈꾸었던 무릉도원도 옛 풍속과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복사꽃 핀 소박한 시골마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고려의 이인로가 찾아간 지리산의 청학동 역시 두어 마리 소를 치고 비탈밭을 일굴 수 있는 한 산자락의 공지였을 뿐입니다. 예이츠가 아스팔트 위에서의 도시생활에 절망하며 이상향으로 갈망하였던 '이니스프리의 호도湖島'란 나뭇가지와 진흙으로 지은 오두막과 이흙 이랑의 콩밭, 꿀벌 통 하나를 갖춘 호수 가운데 삼각주의 숲 생활이었습니다.

위 시의 작가 맹호연(680~740)은 양주襄州 양양襄陽 사람으로 왕유와 함께 성당 시대에 산수전원시파를 형성하여 왕맹王孟이라 병칭되는 위대한 시인입니다. 그는 향리 근처의 녹문산鹿門山에 은거하면서 남방 일대의 산천을 여행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0세의 중년에 비로소 서울 장안으로 와서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천하에 시명詩名이 높아서 장구령·왕유 같은 고관의 지우를 받았고, 왕창령·이백·두보와 같은 대시인들과 교유하였습니다. 맹호연은 벼슬길에서 불우하여 평생 동안 장구령의 종사관을 잠깐 지냈을 뿐, 결국 낙향하여 은거하다가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백은 일찍이 맹호연의 고매한 인품과 은자적 삶을 찬양하여 시를 증정하기를 "나는 맹부자孟夫子를 사랑하는데, 풍류가 천하에 소문났네. 홍안紅顏에 벼슬을 버리고, 백수白首로 소나무 구름 속에 은거하네. 달빛에 취하여 술잔 자주 들이키고, 꽃에 미혹되어 임금을 섬기지 않네. 높은 산을 어떻게 우러를 수 있을까? 다만 여기서 맑은 향에 읊할 뿐이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거의 전 생애 동안 전원으로 은거했던 그의 은자적 면모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홀로 곡차에 취하여 맹호연의 시를 읊조리며 어리석은 후인은 현재의 처지를 한탄할 따름입니다. 나는 대체 언제나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전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㉞

이 글을 쓴 기태원은 중앙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국문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한국한문학 전공)했다. 현재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홍익대 겸임교수로 있다. 저서에 《黃梅泉詩 研究》, 역서에 《東詩話》《精言妙選》《據梧齋集》《高宗辛丑儀軌》 등이 있다.